

메시지 1

예수님의 증거를 위한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

성경: 계 1:1-2, 5, 9-12, 7:9-17, 19:10

I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신실한 증인, 곧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시다.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을 표현하시는 것이 곧 하나님을 증언하시는 것이다 — 계 1:5, 3:14.

- A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인, 곧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이시며,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거와 표현이다. 이러한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증거와 표현의 재생산이다 — 계 1:5.
- B. 요한계시록은 계시되신 그리스도와, 증언하는 교회 곧 예수님의 증거를 제시한다.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증거이시고, 교회는 예수님의 증거, 곧 삼일 하나님의 단체적인 표현인 확대되신 그리스도이다 — 요 1:18, 5:31-37, 8:14, 계 1:2, 5, 9, 19:10, 비교 창 1:26.

II. 예수님의 증거는 본성이 금이고(신성하고), 어둠 속에서 빛나며, 서로가 동일한 일곱 금등잔대이다 — 계 1:1-2, 9-12.

- A. 금등잔대는 삼일 하나님을 상징한다. 실질이신 아버지는 아들 안에 체현되시고, 체현이신 아들은 그 영을 통해 표현되시며, 그 영은 교회들로 완전히 실재화되시고 표현되시며, 교회들은 예수님의 증거이다 — 출 25:31-40, 속 4:2-10, 계 1:10-12.
- B. 예수님의 증거, 곧 예수님의 단체적인 표현(행 9:4-5, 고전 12:12)인 금등잔대들을 체험하려면, 우리는 반드시 계속적으로 주 예수님의 이름을 부름으로써(고전 12:3, 13, 롬 10:12-13, 애 3:55-56) 예수님의 영(행 16:7)으로 충만하게 되어, 형제들로서 그리고 예수님 안에서 환난과 왕국과 인내에 함께 참여한 이들(계 1:9-10)로서 예수님의 낙인(갈 6:17)을 지녀야 한다.
- C. 금을 쳐서 대의 형태를 만드는 것은 믿는 이들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상징한다. 우리의 환경에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등잔대를 쳐서 산출하기 위한 것이다 — 출 25:31, 골 1:24.
 - 1.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하나님을 알아 가는 것—그 영의 내적인 일하심과 바깥 환경에 복종하는 것—에 둔다면, 모든 환경은 우리가 그분을 아는 기회가 될 것이다 — 호 6:1-3, 빌 3:10상, 엡 6:20, 비교 창 41:42.
 - 2. 사람이 자기 생애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면 평생을 허비한 것이다. 주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환경 안에서 그분의 다름을 기꺼이 받아들여 그분을 더욱더 알도록 해 주시기를 바란다 — 고후 4:16-18, 12:7-9, 비교 사 7:14-15, 고후 5:14-15.
 - 3. 문제의 핵심은 어려움과 시련 가운데서 큰 빛이신 주님을 만나느냐 만나지 못하느냐에 있다. 고난은 우리가 고난 없이는 이해할 수 없는 것을 이해하게 할 수 있다 — 고후 1:8-9, 비교 엡 1:17, 눅 1:78-79.
- D. 금등잔대들의 비춤은 사람의 아들이로서 금등잔대들 가운데를 거니시는 영광스러운 그리스도의 이상을 보게 한다. 교회들 가운데 계시는 주님이 영원토록 살아 계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인식함으로써 우리는 그분의 임재가 항상 우리의 영 안에 있다는 것을 확신할 수 있게 된다. 그분은 항상 살아 계셔서 우리를 위해 중보기도 하시며, 우리를 위하여 지금 하나님 면전에 나

타나시고,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시거나 버리지 않으실 것이다 — 계 1:12-18, 2:1, 딤후 4:22, 히 7:25, 9:24, 민 6:22-27, 신 31:6.

E. 금등잔대들의 일곱 등잔이 비추는 것, 불꽃과 같은 일곱 눈과 빛나는 놋쇠와 같은 발로 주 예수님께서 등잔대들 가운데서 거니시는 것, 그리고 그분의 얼굴이 해같이 빛나는 것은 우리가 우리를 구원하고 회복하고 부흥시키고 신화(神化)하는 그분의 목양을 더 많이 받기 위해, 우리의 일상생활과 교회생활에서 주님의 비추심이 더 많이 필요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— 계 1:14 하-15상, 16하, 4:5, 5:6, 눅 1:78-79, 고후 4:6-7, 말 4:2, 잠 4:18, 시 22편 제목, 80:1-3, 7, 15-19.

F. 빛 비춤은 하나님의 긍휼에 달려 있다.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긍휼을 베푸실 때마다, 그분의 얼굴빛이 우리의 빛이 되고, 그분의 나타나심이 우리의 이상이 되며, 그분의 임재가 우리의 유익이 된다 — 롬 9:15, 행 9:3-4, 사 50:10-11, 민 6:25-26.

1.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주님의 비추심을 원하고 받아들여야 하며, 간절히 주님 한 분만을 단일하게 추구하겠다고 마음을 정해야 한다 — 시 139:23-24, 빌 2:12-16, 대하 12:14, 16:12, 34:1-3, 시 27:8, 73:25, 눅 11:33-36.
2.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주님께 열고,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돌이키며, 어떤 것도 보류하거나 숨기지 않은 채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두어야 한다. 자신을 주님께 달는 이들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비평하는 데 전문가들이다 — 고후 3:16, 잠 20:27, 마 7:1-5, 눅 6:36-37, 41-42.
3.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우리 자신을 멈추어야 한다. 이것은 우리의 조망, 우리가 사물을 바라보는 방식, 우리의 느낌, 우리의 생각, 우리의 의견을 멈추는 것을 의미한다. 자신을 완전히 멈춘 사람은 주님께 나아올 때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데 있어서 지극히 단일하고 단순할 수 있다 — 눅 10:38-42, 요 11:21-28, 사 40:31, 마 5:3, 눅 18:15-17, 사 66:1-2.
4.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는 그 영의 빛과 다투지 말아야 하고, 밖에서 말하는 그 영의 사역자들과 다투지 말아야 한다 — 행 22:10, 아 5:4-6, 고후 10:3-5, 11:2-3, 민 16:1-7, 31-39, 17:1-8, 비교 출 33:11-14.
5. 빛 비춤을 받으려면 우리는 반드시 계속 빛 안에 살아야 한다 — 사 2:5, 요일 1:7, 히 9:14, 10:22, 마 5:3, 8, 14, 시 119:105, 계 1:20, 시 36:8-9.

Ⅲ. 예수님의 증거는 성전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큰 무리 곧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몸 전체인데, 이들은 하늘들로 휴거되어 오늘 우리가 하늘들의 영역 안에서와 그리스도 안에서 누릴 수 있는 모든 영적인 축복과 더불어 하나님의 돌봄과 어린양의 목양을 누린다 — 계 7:9-17, 엡 1:3, 갈 3:14, 창 12:2, 비교 계 21:3-4, 22:3-5, 사 49:10.

A. 큰 무리는 각 민족과 모든 지파와 백성과 언어에서 어린양의 피로 사서 교회의 구성원들이 된 사람들로 이루어진다 — 계 7:9상, 5:9, 롬 11:25, 행 15:14, 19, 고전 6:19-20.

B. “이 사람들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사람들인데, 그들의 겉옷을 어린양의 피로 빨아서 희게 하였습니다.” — 계 7:14.

1. 요한계시록 7장 14절에서 큰 환난은 하나님께서 구속하신 백성이 역대로 체험한 환난과 고난과 박해와 고통을 가리킨다 — 요 16:33.
 2. 어린양의 피는 우리에게 대한 마귀의 모든 비난에 대응하여 우리가 그를 이기도록 한다(계 12:11). 우리의 모든 죄와 불결을 씻는 보혈의 열린 샘(속 13:1, 요 19:34)이신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피 아래 잠기어 우리의 모든 죄의 얼룩을 없앨 수 있으며(영한 동변 찬송가 1006장, 한국복음서원 찬송가 686장 1절), ‘새로워진 마음으로 흰옷을 입고서 / 하나님의 빛 가운데 / 세상과 죄 이겨’(영어 찬송가 1010장 3절) 낼 수 있다.
 3. 우리의 겉옷을 빼는 것은 어린양의 피로 씻어서 우리의 행위를 깨끗하게 지키는 것이다. 이렇게 함으로써, 우리는 생명나무를 누리고 하나님의 영원한 축복의 영역인 생명의 성으로 들어갈 권리를 얻는다 — 요일 1:7, 계 22:14.
- C. 그 큰 무리는 손에 야자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양 앞에 서 있다 — 계 7:9하.
1. 야자나무 가지는 우리가 환난을 이기고 승리한 것을 상징하며, 우리는 주님을 위해 이 환난을 겪었다. 야자나무는 또한 물을 공급받음으로써 얻은 만족을 의미하는 하나의 표징이다 — 계 7:14, 비교 요 12:13, 출 15:27.
 2. 하나님의 성전이신 삼일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밤낮 그분을 섬기면서 영원한 장막절이신 그분을 누리고 야자나무처럼 생명 안에서 번성할 것이다 — 계 7:15상, 3:12, 레 23:40, 느 8:15, 시 92:12-13, 요 7:2, 37-39, 롬 1:9, 골 2:19.
 3. 오늘날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는 봉사는 영원 안에서 우리가 할 봉사를 위한 준비이다. 시간 안에서 하나님의 유일한 목적은 매일 그분 자신을 우리 안에 분배하시는 것이다. 하나님께서 우리 안으로 오시고 우리에게서 나가실 때 그것이 봉사이다 — 마 25:19-23, 요 7:37-39.
- D. 우리는 더 이상 굶주리지 않고, 목마르지도 않을 것이다 — 계 7:16상.
1. 굶주리고 목마른 것은 아직 만족되지 않은 소망을 갖고 있다는 것이다. 그리스도는 그분을 믿는 사람마다 만족할 것이고, 만족하게 하는 생명이신 그분을 받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셨다 — 요 6:35.
 2. 우리의 영 안에서 영 하나님을 접촉하는 것은 생수를 마시는 것이고, 생수를 마시는 것은 하나님께 참된 경배를 드리는 것이다 — 요 4:13-14, 23-24.
- E. 내리찍는 해나 뜨거운 열이 우리를 상하게 하지 않을 것이다 — 계 7:16하.
1. 보좌에 앉으신 어린양-하나님께서 우리 위에 장막을 치실 것이고, 그분 자신으로 우리를 덮으실 것이다 — 계 7:15하, 고후 12:9.
 2. 한 종류의 생명만이 하나님의 덮으심 아래 있는데, 그것은 하나님 안에 감추어진 생명이다 — 시 36:7-9, 엡 6:17, 시 91:1, 17:8, 57:1, 룿 2:12.
 3. 그리스도는 여호와이시자 또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에게 공급하시며 그들을 돌보시고 감싸 주시는 왕이시다. 그분은 다스리시는 왕이시며, 바람을 피하는 곳과 폭풍우를 가리는 곳 같고 메마른 곳에 흐르는 시냇물 같으며 황무지의 큰 바위 그늘 같은 사람이시다 — 사 32:1-2.
- F.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양께서 우리를 목양하시고 생명수의 샘들로 안내하실 것이다 — 계 7:17상.

1. 목양하는 것은 먹이는 것을 포함한다. 그리스도께서 목양하실 때에 우리에게는 부족한 것이 없다 — 시 23:1.
 2. 우리는 결코 자신을 개선할 수 없고, 항상 우리를 먹이시는 목자가 필요하다. 그분은 하나님의 집 안에서 하나님의 집을 위해 하나님의 보좌에 계신 하나님의 어린양으로서 자신의 체험을 어린양들에게 먹이신다 — 시 23:2-6, 계 22:1.
- G. 그분은 우리의 눈의 모든 눈물을 닦아 주실 것이다 — 계 7:17하.
1. 눈물은 이 시대에서 피할 수 없는 것이지만, 우리의 눈물은 하나님의 병에 담기고 그분의 책에 기록된다 — 히 5:7, 행 20:19, 31, 시 56:8, 비교 말 3:16.
 2. 어린양께서 우리의 만족을 위해 생명수를 우리에게 공급하시기 때문에, 우리의 눈물이 닦아진다 — 렘 9:1, 2:13, 비교 15:16, 애 3:21-25, 55-56.
 3. 슬픔의 날들과 슬픔의 일들이 계속되지 않는다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드리자. 세상은 지나가고 있으며, 우리는 영원한 생명의 총체인 새 예루살렘이 될 때까지, 흐르시는 삼일 하나님을 마시는 축복을 받았다 — 요 4:14하.